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현대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음 9월 4일) 제214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오늘 개막

## 맛의 고장 전북 체육으로 한 뜻

18일까지 익산 등 도내 전 시군에서 개최식은 역사·문화·비전 선보여

인간 승리의 기록, 각본없는 드라마의 대서사시가 전라북도 일원에서 일주일간 펼쳐진다.

11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스포츠 대제전인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12일부터 18일까지 익산 등 도내 전 시·군에서 진행된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의 해이자 15년 만에 전북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국체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출전,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17개 시·도와 해외동포 선수단 등 약 3만명이 참가하며 총 47개 종목(정식종목 46개·시범종목 1개)이 도내 73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전북 선수단은 종합성적 3위를 목표로 선수와 임원 등 총 1725명이 출전, 메달 사냥에 나선다.

특히 제18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투혼을 보인 전북 선수들도 출전, 영광과 환희의 기쁨을 재현할 예정이다.

이번 전국체전에 전북 대표로 출전하는 아시안게임 스타들은 수영(강지

석·고미소), 사이클(김유리·박상훈), 역도(문민희), 유도(김성민), 체조(이혁중·박민수·이준호), 펜싱(구본길·김정환·권영준·김지연·황선아) 등 총 6개 종목 14명이다.

또 역도의 유동주 선수와 체조의 박민수 선수는 다관왕이 예상되고 배드민턴과 테니스, 펜싱, 자전거 등의 종목에서도 승리의 환희성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선수단은 이번 전국체전을 체육대회를 넘어 전북 체육 위상을 높이고 자존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국체전 개최식은 12일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리며 '천년의 승결, 생동의 울림'을 주제로 전북의 역사·문화·비전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이번 전국체전을 문화·참여·경제·안전체전으로 치르기 위해 체전준비단·시군체육회 등과 힘을 모아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며 "폐막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11일 서울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 이해찬 대표와 김두관 참총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및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시도 주요현안 및 2019년 예산과 관련된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송하진 도지사 “새만금 항만 실질적 예산 반영”

민주당 광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전북현안 건의

송하진 도지사는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광역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전북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때문에 그동안 보수언론에서 악취 때문에 우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당차원에서 단호한 의견 표현을 강조했다.

또한 군산 GM이나 조선소 문제 때문에 전북도는 총량 경제지표는 항상 꼴등이며, 30% 가까이 정부지원을 받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보수언론 우려 의견 표현” 강조  
신재생에너지 예산 지원 주문  
남원 국립보건의료대학원에 부속병원 설치 강력히 호소

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용차 중심의 생태계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등에 더

많은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아울러 “남원 서남대 폐쇄 국립보건 의료대학원 설립에 희망이 보이지만 그 곳에 대체할 남원 의료원 기능이 강화가 된다”며 대학원에 부속병원 설치를 강력히 호소했다.

이 밖에 “새만금이 남북도로 기공식과 더불어 실질적이고 규모있는 기업들이 나타나서 최근 8개월 동안에 여러건의 투자유치협약을 체결과 대표적으로 보성 한양그룹에서 지금 이미 SPC가 현재 차원에서 새만금 투자가 여건만 주어진다면 엄청난 속도로 빨라

질 것 같다”며, 항만이나 철도 등에 실질적인 차원에서 예산도 반영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방자치제를 하게 되면서도 분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법제화하고 의제화하고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98억원 투입... 전북도 국제 양궁장 준공

전라북도 국제 양궁장의 준공식이 전국체전을 하루 앞둔 10월11일 대한양궁협회 김기찬 부회장 등 양궁관계자 및 도민들과 함께 성대하게 치러졌다.

전라북도 국제 양궁장은 2004년 박성현 선수가 아테네 올림픽에서 쏘아 올린 금빛 활이 시작이 되어 2013년 건립계획을 마련하고 임실군 오수면에 총사업비 98억원을 투자해서 부지 조성(73,683㎡) 및 주경기장(29,400㎡), 실내훈련장 등 경기운영시설

(2,674㎡) 등을 조성했다.

지난 5월 전라북도 양궁장 명칭공모전을 통해 전라북도 국제 양궁장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전북도청 박성현 감사님의 기록을 기념하기 위해 '박성현 그랜드 달성 기념'이라는 서브네임도 가지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동안 최고의 양궁장에서 많은 기록이 쏟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 법사위, 현재 국감서 “사법농단 판사 탄핵 필요”

백혜련 의원 “탄핵하고도 남야” · 현재 “국회 결정시 엄정 심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측은 “국회에서 결정하는대로 재판부에서 엄정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상 법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되면 현재는 탄핵 심판을 하게 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재 국감사에서 “사법농단 사건은 탄핵을 하고도 남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례 없는 사법농단 사건은 같은 헌법기관인 현재의 위상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도 있다”며 “사법농단 주역들이 기소돼도 과연 유죄판결이 날지 의문스럽고, 법관징계법에 의한 징직 처분만 가능해 이들이 사법 현장에 다시 복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 백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판사 탄핵 관련 사례는 1985년 유태홍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 두 차례가 있었다. 유 대법원장은 탄핵 소추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으나 부결됐으며, 신 대법관은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백 의원은 “결국 사법업무에서 배제하려면 탄핵만 남는다”며 “일본에는 재판관 탄핵법이 따로 존재하는데 파면사유로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위

신을 현저히 저해하는 비위 등이 있을 때, 탄핵소추가 인용된 사례를 보면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들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비춰 사법농단 사건은 당연히 탄핵을 하고도 남을 사안으로 보인다”며 “탄핵 대상 법관들을 재판 업무에서 영구적 배제하기 위해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현정 현재 사무처장은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통제하는 권한 겸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 결정하면 현재에서 엄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뉴스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세계로 도약하는 새만금 김제

시민역량을 결집하여 김제 미래 100년을 위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새만금의 중심도시 김제, 동북아 경제 거점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김제시